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긴 지장보살처럼…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최근 60년간 우리나라 인구 풍속도는 완전한 변화를 겪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하던 시대는 전설에나 나오는 일이 되었고, 광역지자체마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시점을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이런 세태를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 분야이다. 아이가 한 집에 열이든, 열 집에 하나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강화되고 강조되어온 분야가 교육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사교육 시장은 규모 면에서도 열정과 의지 측면에서도 공교육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면 대학입시 준비가 시작되는 이상한 사회, 대학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급격한 내리막길이어서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이 비슷해졌는데도 1등만 살아남는 사회를 각인시키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입시경쟁, 그것이 기성의 어른들이 우리 청년과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라는 현실이다. 숫자가 적어지면 경쟁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경쟁을 부추겨 온 현장,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각박한 현실이 기성의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약속했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던져준 삶의 현실이다.

〈열반경〉 '사자후보살품'에는 보살이 성취하는 경지로 '일자지(一子地)'라는 것이 나온다. 경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자지'를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지를 성취하면, 이 인연으로 보살

저출산 시대에도 입시 교육 안 변해
'一子地'란 보살의 경지를 되새긴다
귀해진 아이들, 경쟁에 방치해선 안돼

이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얻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들은 '일자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일자지(一子地)'는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기는 보살의 마음을 뜻한다. 크고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가 외아들 바라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곧 보살이 중생을 바라보는 애틋함이 부모가 외아들을 바라보고 보살피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이다. 옛 방식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3대 독자나 5대 독자를 애지중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굳이 '일자지'를 언급하는 것은 요즈음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조건지운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묻고 싶어서이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입시지옥으로 자식을 내몰아, 성적을 올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 세태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묻고 싶어서이다.

〈금강삼매경〉 '총지품'에서 지장보살은 "내가 지금 깨달은 곳에서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교화하여, 매우 자비로우신 부처님처럼 본원(本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에서 번뇌 속에 머물고자 하네"라고 말한다. 지옥중생도 마다하지 않고 구하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이다. 마지막 한 중생까지 다 구하고자 한다면, 중생 하나하나가 외아들이라 여겨져야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가뜩이나 귀해진 우리네 아이들은 더욱 소중하다. 한 집에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집에 한 아이이다. 지장보살 일자지(一子地)의 경계를 넘어선 현실에 있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성적순의 암울한 현실에 방치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우리는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뉴진 스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1978년 출판되어 한국 현대문학의 고전이라고 평가받는 책이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이라는 조세희 작가의 소설집이 그것이다. 이 책은 한참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도시 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당대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 책을 보고 일부 평론가들은 조세희 작가를 시대의 그림자를 밝혀온 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막 지난 주말 오후,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한 학회의 모임에 참석했었다. 종교사회학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대부분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이었다.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오간 안부 인사마다 뉴진 스님을 거론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뉴진 스님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법복 착용의 허용 범위, 불교와 승려에 대한 모독 여부, 눈높이 포교, 힙한 불교 등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뉴진 스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논쟁이 드문 한국불교계에서 모처럼 전방위적 파장을 지닌 공 하나가 튀어 오른 셈이다.

이 글의 서두를 난쏘공과 조세희 작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것은 조세희 작가가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공을 뉴진 스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난쏘공·뉴진 스님, '절박함' 공통점
변화 가늠 못하는 '막막함'도 닮아
지금 절박함이 난제 극복 계기되길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사람이 쏘아올린 공은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 철거 후 죽음으로 내몰리는 난장이가 마주한 삶의 절박함이 탈종교화 추세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불교에서도 뻔히 보인다.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변화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든 현실의 막막함도, 어스름하게 보이는 비상구도 닮아 보인다.

난장이의 절박함과 한국불교의 절박함은 객관적인 위기 상황을 모두가 내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닮아있다. 난장이를 죽음으로 내몬 철거와 아파트 입주권이 누군가에게는 부의 원천이 되었듯이, 또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는 죽음을 택하고 누군가는 삶을 선택했듯이, 위기의 체감지수는 스님마다 그리고 불자마다 다른 것 같다. 뉴진 스님을 향한 MZ세대의 열광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난쏘공이 걸어온 길에서 오늘의 불교가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작고한 조세희 작가는 난쏘공이 읽히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아직도 난쏘공이 스테디셀러라는 점은 아이러니지만, 난쏘공의 독자들은 조세희 작가와 본인들이 희망했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끝없이 치열하게 고민했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

뉴진 스님이 쏘아올린 공이 어떤 논쟁을 불러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한국불교가 당면한 현실의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지혜를 모으고,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한국불교의 화두가 될 테니까.

社 說

한국불교학회 변화 시도에 거는 기대

자현 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한국불교학회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당장 올해부터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논문 게재료를 완전 면제한다. 기준 분량이 초과될 시 받는 초과 게재료도, 전임 교원에 대한 게재료도, 사사(연구비 지원) 논문에 대해서도 게재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생애 처음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신진학자에게는 논문 심사료 9만원도 환급해준다.

이로 인해 한해 700~1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해야 하지만, 자현 스님의 이 같은 시도는 이유가 있다. 논문 게재료를 면제해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신진학자들이 비용 걱정없이 논문을 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회 회원들의 연회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것도 불교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다.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방식 변화도 눈길을 끈다. "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보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중간에 있는 영역"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대중적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발표 방식도 발제문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닌 PPT형식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자현 스님은 "불교라는 큰 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는 불이 난 곳을 못 찾아서 진화를 못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불교학회가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들이 불교학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보살계 연구회' 결성에 부쳐

보살계(菩薩戒)는 본래는 대승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의미하는 것이나 지금은 스님이든 속인이든 불도(佛道)를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계율로 인식된다.

보살계와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과 이상엽 서울대 교수가 중심이 돼 결성한 보살계연구회는 이름 그대로 보살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모임이다.

"계율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불교계 학회가 없다는 학문적 갈증에서 연구모임을 결성했다"는 게 법장 스님의 설명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인사 승가대학·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는 7월 21일 오후 1시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보살의 이상과 현실- 인도에서 한국까지'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중국·한국의 보살계 전반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향후에는 보살계뿐만 아니라 율장과 청규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律)은 '부처님의 행동'이라고 했다. 선·교·율 안에 팔만사천법문이 담겼다. 나날이 혼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계율은 출재가 모두에게 중요한 윤리규범으로 다가온다. 계율을 전문으로 연구할 '보살계 연구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대구지사 : 010-6780-9190
충청지사 : 010-8341-0560 영주지국 : 010-9373-3778
경남지사 : 010-3860-7008 전북지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